# 기업 리포트





# 세코닉스(053450)

## 엔비디아-현대차 협력의 핵심 부품, 자동차 렌즈 국내 유일 글로벌 플레이어

## Stock Data

2026. 04. 29 KRX 종가 기준

| | |
|---|---|
| 현재주가 | 5,530원 |
| 시가총액 | 818억원 |
| 발행주식수 | 14,792,803주 |
| 52주최고가 | 7,550원 |
| 52주최저가 | 4,730원 |
| 외국인지분율 | 4.45% |
| 유동주식비율 | 79.51% |

## 주요주주

| | |
|---|---|
| 박은경외1인 | 19.38% |
| 자사주 | 1.11% |

## INVESTMENT SUMMARY

모바일 렌즈 중심에서 차량용 카메라·램프 중심 전장 광학 기업으로 구조 전환
자동차 카메라 렌즈 시장 구조적 성장, 자율주행/AI/로봇 등 전방시장 확대
엔비디아-현대차 자율주행 협력 확대 속 차량용 핵심 렌즈 공급사 재평가 기대
2025년 실적 저점 통과 후 고객사 확대 및 수요 증가 따른 턴어라운드 기대

## 연결 실적 추이

| | 2022 | 2023 | 2024 | 2025 |
|---|---|---|---|---|
| 매출액(억원) | 4,796 | 5,024 | 4,627 | 4,349 |
| 영업이익(억원) | 62 | 162 | 144 | 30 |
| 당기순이익(억원) | -22 | 114 | 100 | 50 |
| OPM(%) | 1.28 | 3.22 | 3.12 | 0.69 |
| EPS(원) | -146 | 769 | 668 | 323 |
| PER(배) | N/A | 9.12 | 8.15 | 16.55 |
| BPS(원) | 7,541 | 8,414 | 9,371 | 9,657 |
| PBR(배) | 0.71 | 0.83 | 0.58 | 0.55 |
| ROE(%) | -2.07 | 9.75 | 7.59 | 3.44 |
| ROA(%) | -0.7 | 3.87 | 3.51 | 1.7 |

자료출처 : DART, 에프앤가이드, 지엘리서치

## Cont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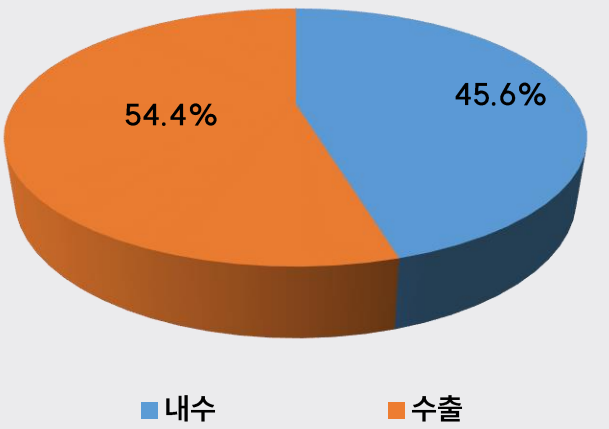


Analyst 박 창 윤 RA 김 범 태
research@glstory.co.kr

現 지엘스토리 대표
금융투자분석사 포함 다수 자격 보유
前 메리츠증권, 아이엠투자증권

지엘리서치 공식 홈페이지
http://glstory.co.kr

## 매출비중 (2025기준)




## 주가 및 거래량 추이 (최근 1년)




자료출처 :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 스마트폰 렌즈에서 전장 광학 핵심 기업으로 사업 구조 전환

**세코닉스**(이하 동사)는 모바일 카메라 렌즈, 차량용 카메라 렌즈 및 모듈, 차량용 램프, 광학필름 등을 생산하는 광학부품 전문기업이다. 과거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중심으로 성장했으나, 현재는 차량용 카메라와 램프를 중심으로 전장 광학 기업으로 사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동사는 Business Research Insights가 분석한 **글로벌 자동차렌즈 공급업체 리스트에서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거론**되는 업체다. 자동차 렌즈는 스마트폰 렌즈 대비 품질 검증 기간이 길고, 고온·저온·진동·습도 등 극한 환경에서 장기 신뢰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단순 생산능력보다 광학 설계, 금형, 사출, 코팅, 조립, 검사까지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역량이 중요하다. 동사는 설계부터 양산까지 전 과정을 자체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소수 광학 기업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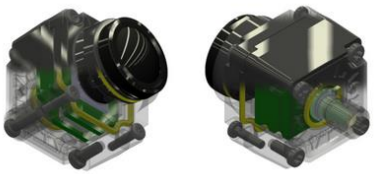
**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는 NVIDIA DRIVE Hyperion 플랫폼 기반의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대규모 차량 데이터, 자율주행 개발 역량을 엔비디아의 AI 컴퓨팅 플랫폼과 결합해 레벨 2+부터 레벨 4 로보택시까지 확장 가능한 자율주행 스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 플랫폼이 고도화될수록 차량 내 카메라 수와 성능 요구 수준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동사는 **현대모비스에 차량용 렌즈를 공급하고 있으며, 엔비디아향 차량용 렌즈 공급 이력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차량 제어 보드에 탑재되는 카메라용 렌즈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엔비디아 자율주행 하드웨어 밸류체인 내 수혜 가능성이 부각된다.

**세코닉스 엔비디아 차량용 카메라 사양**

SEKONIX NVIDIA DRIVE CAMERA SPECIFICATION

| Model Name | Serializer | Type Name | Color Filter | Image Size | Effective Pixels | FOV |
|---|---|---|---|---|---|---|
| SF3325-100 | MAX96705 | GMSL | RCCB | 1/2.7-inch | 1928 x 1208 | 60 |
| SF3324-100 | MAX96705 | GMSL | RCCB | 1/2.7-inch | 1928 x 1208 | 120 |



출처 : 세코닉스, 지엘리서치

## 자동차용 카메라 렌즈 구조적 성장세, 자율주행/AI/로봇까지 적용처 확대

**자동차 카메라 렌즈 시장은 자율주행 확산, 안전 규제 강화, 운전자 편의 기능 증가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장기 성장성이 높다. 과거 차량용 카메라는 후방 주차 보조 중심의 선택 사양에 가까웠으나, 현재는 ADAS와 자율주행의 핵심 센서로 위상이 바뀌었다. 카메라는 차선 인식, 보행자 인식, 신호등 인식, 충돌 방지,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등 의미 기반 판단에 필수적인 센서다.

차량당 카메라 탑재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 2~3개 수준이던 차량당 카메라 수는 최근 10개 이상으로 늘었고, 고사양 전기차의 경우 12개 이상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자율주행 단계가 높아질수록 전방·측방·후방·인캐빈 카메라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고해상도·HDR·저조도 대응·광시야각 등 사양 고도화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는 렌즈 수량 증가와 단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구조다.

안전 규제도 수요 확대를 뒷받침한다. 미국은 후방카메라 장착을 의무화했고, 유럽은 Euro NCAP과 GSR2를 통해 AEB, 차선이탈 방지,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등 카메라 기반 안전 기능의 평가와 의무화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역시 스마트 커넥티드카 표준을 통해 전방 인식 및 차간거리 유지 기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카메라 렌즈는 경기 민감 부품이 아니라 안전 규제와 자율주행 전환에 의해 채택률이 높아지는 부품으로 봐야 한다.

동사는 2007년부터 차량용 카메라 시장에 진입해 후방카메라에서 조향 연동형 카메라, 차선 인식(LDWS), 차선 유지 지원(LKAS), 전방 추돌경고(FCW), 운전자 상태 인식(DSW), 하이빔어시스트(HBA),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왔다. 고해상도 HDR 카메라와 나이트비전용 고감도 렌즈는 유럽 자동차안전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ADAS 고도화 구간에서 수혜가 가능하다.

동사의 광학 기술은 자동차 카메라와 램프를 넘어 **AI 로봇, HUD, AR/MR 등으로 확장 가능하다. 동사는 로봇·AI 분야 특수 광학부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카메라·렌즈 솔루션 개발 및 수주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분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 또한 ADAS 정보와 내비게이션 정보를 통합 표시하는 증강현실 기반 차량용 HUD 시스템 개발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가 SDV와 자율주행 중심으로 바뀔수록 차량 내외부에서 정보를 인식하고 표시하는 광학 부품의 역할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세코닉스 차량용 카메라**




출처 : 세코닉스, 지엘리서치

## 2026년, 실적 턴어라운드의 시작

2025년 연결 기준 동사는 매출액 4,349억원(-6% YoY), 영업이익 30억원(-79% YoY)을 기록했다. 주요 고객사의 모델 전환, 공급망 변화,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차량용 카메라 판매량 감소 등이 동시에 반영됐다. 다만 전장 수요 자체가 훼손된 것은 아니다. 전동화 및 ADAS 투자 확대에 따른 중장기 수요는 견조하나, 고객사 발주 조정과 공급망 변화가 단기 수익성을 압박한 구간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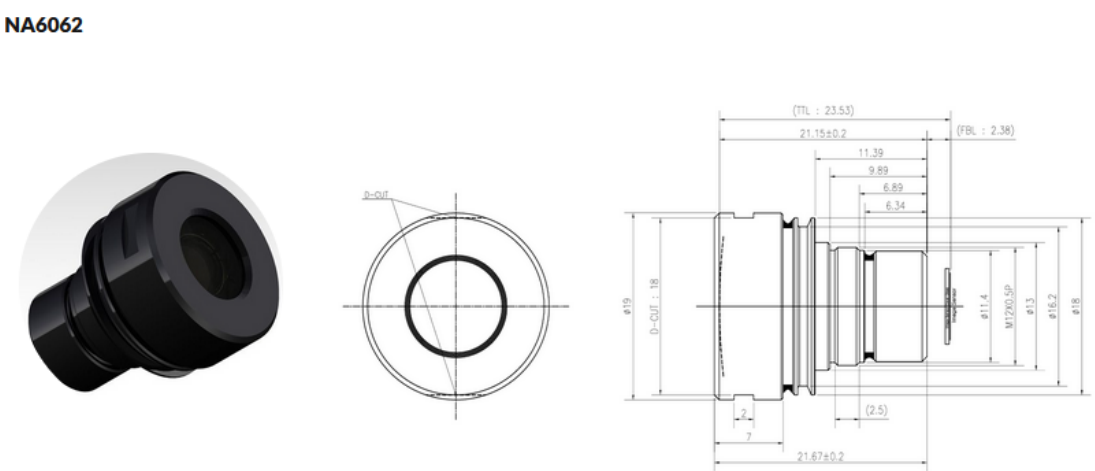
동사는 자동차용 램프 제품 비중 확대, 생산성 개선, 원가 절감 활동을 통해 매출 감소 폭을 방어했다. 차량용 카메라 및 램프 모듈의 2025년 생산능력은 1,750만개, 생산실적은 1,273만개, 가동률은 72.8% 수준이다. 전장 물량이 회복될 경우 기존 설비 활용도 상승을 통한 고정비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

**턴어라운드의 첫 번째 축은 차량용 카메라 물량 회복이다.** 2025년에는 모델 전환에 따른 일시적 매출 감소 영향이 있었으나, 글로벌 미국 전기차 업체로부터 렌즈 공급 수주를 확정했다.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확대에 따른 카메라 증가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어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 기존 후방·주차 카메라뿐 아니라 서라운드뷰, 차선·전방인식, 운전자 및 탑승자 모니터링용 카메라 모듈까지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는 점도 긍정적이다.

**두 번째 축은 차량용 램프 사업이다.** 동사의 폴란드 법인은 현대모비스 체코공장에 LED 헤드램프를 단독 공급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다. 차량 조명 시장은 할로겐·HID에서 LED, Adaptive Lighting, Matrix Beam 등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램프는 단순 조명 부품이 아니라 ADAS와 연동되는 안전·디자인 핵심 부품으로 바뀌고 있어, 동사 전장 사업의 실적 방어와 성장에 모두 기여할 수 있다.

**세 번째 축은 낮아진 실적 기저다.** 2025년에는 고객사 발주 조정과 공급사 이원화, 비용 부담으로 수익성이 크게 둔화됐다. 그러나 전장 카메라 물량 회복과 램프 매출 성장이 이어질 경우 기존 생산설비 활용도 상승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가 나타날 수 있다. 자동차향 렌즈와 램프는 인증과 양산 검증이 끝난 이후 장기 공급 구조가 형성되는 특성이 있어, 신규 수주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수익성 개선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세코닉스 차량용 카메라 렌즈 상세도**




출처 : 세코닉스, 지엘리서치

## 리포트 발행내역

1회차
2026.04.30

## Compliance Notice

-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 종목의 경우, 작성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리포트 작성일 현재 동 리포트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일 뿐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사항

본 리포트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개인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리포트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무단 복사, 복제 및 대여, 배포할 수 없습니다.

지엘리서치 공식 홈페이지
http://glstory.co.kr